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0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이효연(KBS)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이효연 기자입니다. 먼저 두 선생님의 발표를 아주 가
슴 깊이 새기면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보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
전처 등을 출입하고 있고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첫 환자가 보도된 이후
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이슈를 취재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KBS가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얼마나 코로나19 이슈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 해서 보도해왔는가..좀 방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먼저, 속보경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줄짜리 속보경쟁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
로, 비판적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KBS와 KBS를 제외한 다른 언
론사를 같이 놓고 이야기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경우는 한줄 속보를 최대한 빨리 내서 클릭수를 높이고 또 클릭수가 광고와 연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줄 속보 경쟁이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KBS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데일리 뉴스의 생명력이 24시간인 시대는 아주 오래 전에 끝났습니다. 포털에 오른 뉴스를 수용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보는데,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짧게 1보를 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뉴스
를 전하는 미디어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KBS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줄 속보를 전송하는 경우는 매일 오전 10시 10 분 딱 한 차례였습니다. 이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전날 확진자 통계가 나오는
데, 이때 한 줄 속보를 쳤습니다. 저는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고, 어느 지역에
서 늘었고, 사망자는 몇 명지에 대한 1보, 한 줄짜리 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줄 속보에도 조회 수가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자들이 코로나19의 새 소식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
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정말 지독하고 고약하다고 말하고 있
고요, 6개월간 코로나19를 보도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된 사람일수록, 이런 정보를 더 얻어서 코로나
19에 대한 위험성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정보전달
을 위한 미디어의 본연의 기능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해주신 솔루션저널리즘에 대해서는 배울 만한 것이 많
다고 생각합니다. 솔루션저널리즘이 처음에는 어렵게 다가왔는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솔루션저널리즘 보도를 위한 질문지>를 보니까 이해가 쉽게 되더
라고요. 질문지에 나온 12개의 질문 가운데 KBS가 7~8개 정도는 솔루션저널
리즘의 형식으로 9시 뉴스에 보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KBS는 솔루션 저널
리즘을 어떻게 실행해갈 것이냐,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KBS 내부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라는 의미
의 with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가 5개월째 지속되다보니까, 뉴스가 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
다. 그런데, 솔루션 저널리즘에서 제시해주는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그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보도를 앞으로 한다면 코로나19 이슈를 좀 더 뉴~하게, 그러
면서 깊이도 있는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